

**The Church History of
Korea**
한국교회사

The Church History of Korea

선교 이전

■ 복음의 씨앗이 순전히 조선 사람들 그 자신의 손에 의해 소개되었다. 그리고 그 씨앗은 장차 온갖 시련을 겪으면서도 말라 없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움을 트고 다시 토양 속에 싹을 내는 그런 일을 시작하였습니다.

-The Edinburgh Review, 1872.

The Church History of Korea

■ 병자호란

- 1636년 12월 28일-1637년 2월 24일 인조.
- 청나라(만주 여진족) 침공
 - 10만 대군
 - 청의 명나라 침공 이전 교두보 확보
- 청 포위로 인한 굶주림과 추위.
- 강화도 파천 함락.
- 남한산성 삼전도 인조, 삼매구고두레 /1637년
 - 임진왜란 후 40년

The Church History of Korea

- 병자호란 후 배상
 - . 청에 대하여 신하의 예(禮)를 행할 것.
 - . 명의 연호 폐지 및 단교.
 - . 왕의 장자(長者)와 차자, 대신의 자녀를 인질로.
 - . 청이 명을 정벌할 때 원군 파견.
 - . 성곽 증축과 수리는 사전 허락 얻을 것.
 - . 황금 100냥, 백은 1,000냥 의 물품 20여 종 세폐(歲幣).
 - . 성절·정삭·동지·경조 등 사신은 명 구례(舊例) 준수.
 - . 가도(假島) 공격시 병선(兵船) 50척(隻) 지원.
 - . 포도(逋逃) 숨기지 말 것.

The Church History of Korea

- 소현세자
 - 청의 북경 천도
 - 소현세자 북경 거주
 - 북경 예수교 신부 아담 살(독일인) 친교
 - 아담 살 - 천문학 권위자 <聖教正道>
 - 천주像 ----- 세자 귀국
 - 예수회의 선교
 - 문화적, 종교적 영향 → 개종
 - ex) 아담 살의 포르투갈 식민지 확장 혐의 옥사
 - 소현세자 귀국 70일만에 별세(학질) / 1644년

The Church History of Korea

- 서학과의 접촉
 - 병자호란 이후 조선의 사상
 - 주자학(명분론)의 쇠락
 - “조선의 실지연구”, “조선 경제의 개조”
 - 서구문명과의 접촉(ex, 하멜 표류), 문예부흥
 - ‘서학’에 대한 관심 → 기독교
 - 이수광(1563-1628)의 <지봉유설>(1614)에서
 <천주실의>(마테오 리치)를 논평.

The Church History of Korea

- 천주실의
 - . 천주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.
 - . 평안과 양육의 도로 세상을 주관하심을 논함.
 - . 사람의 혼이 불멸할 것.
 - . 짐승과 크게 다르다.
 - . 불교의 교설은 잘못되었다.
 - . 인성은 본래 선하다
 - . 교화황(교황)에 대한 언급
 - . 기독교 세계관과 창조론으로 동양에 획기적.
 - . 세계사는 우연, 윤회, 요행, 인과응보 뒤섞인 공간이 x
- ※ 어떤 결함이 있는가

The Church History of Korea

- 이익의 <성호사설>
 - . “(서학에는) 유교에 없는 것이 있다”
 - 유학적 가치관 비판 ←---- 중국적인 것 비판
 - . <천주실의>에 대한 논평
 - ‘천주’는 유가에서 말하는 ‘상제’와 동일
 - 경건과 신앙의 입장에서 불교의 석가와 같다
 - 예수에 대하여 - 처녀 탄생, 선교, 십자가 죽음 부활
 - 비교종교학 관점
 - . 순수한 서학의 기본적 가르침 강조
 - . ‘천주학’= 서학

The Church History of Korea

- 서학의 종교성 문제
 - “천주교는 사학(邪學)이다” 박지원
 - 허균의 <계> ---- 가톨릭 기도문
 - ‘서교’가 종교가 되도록
 - 홍유한(이익의 제자)
 - 그리스도의 축일 제7일 수용
 - 7일마다 안식, (생업 휴일), 금욕 생활
 - 제사 문제
 - “...무인년에 해서지방에 사학이 퍼져 집집마다, 모든 사람들이 사당을 부수고... 사학을 따르는 무리가 많아”

The Church History of Korea

- 박지원은 '야소교'와 '예수회' 분간 불가
- 교회와 사목의 지도가 없어
 - 책에서 얻은 단편적 지식
- 그러나 제사 문제에 있어서는 강공.
- 최초의 세례자 이승훈(1756-1801)

The Church History of Korea

■ 이승훈과 천주교

- 북경에서 접한 서학/천주교
 - 천문학, 수학, 과학, 도덕적 교훈의 순결과 우수
 - 북경에서 세례 (세례명 '반석') / 1784년
- 신도가 선교사를 찾아간 케이스
 - 62p 인용 reading
- 전도자 이벽(이익의 증손)
 - 정약용, 정약전, 정약종
 - 교리 강습회 (청건을 머리에 쓰고 유교 사제처럼)
 - 63p 인용 reading

The Church History of Korea

- 북경에 성직자 파송 요청
- 박해--- 예배처소 급습 1785년
 - 김범우 순교 (카톨릭 최초의 순교자)
 - 집터 명동 성당
 - 이승훈과 이벽의 배교
- “(서교가) 사설인 까닭에 가족들 회의에서 북경에서 가져온 책들과 의식에 쓰는 기구들을 다 불 살라버리고 끝내는 이단을 물리친다는 벽이문을 작성하여 서교를 배척한다...”

The Church History of Korea

-- 결과

- . 조선 젊은이들의 종말의식
- . 쇄국 기본 정책의 전거가 됨
(조선 건국의 국시 --- 유교)

The Church History of Korea

체제와 전통 간의 이질

■ 신해교난(신해박해)

- 인조 때 조선 가톨릭 유입
영조 때, 해서와 관동 지역 인기
사당 폐쇄
----- 하류층 사교로 인식
- 정조 때, 윤지충과 권상연
제사 철폐, 신주 방화 ----- 폐륜
----- 교난으로 인식

The Church History of Korea

-- 해서 관동 지역과

- 호남 지역의 반응 차이와 분석
- 호남 선비 - 남인 - 신서파와 공서파
체제공 영의정(정조 17년)
윤지충 문제 부각
- 결과: 이승훈 귀향
서양서적 갱유

The Church History of Korea

- 신유박해(신유교난)
 - 체제공 사후(1799), 정조 사후(1800)
 - 순조의 대왕대비에 의한 '사학'(서교) 박멸 교시
 - 기독교의 비인간성과 비국민성
 - 체제 도전, 예교(禮敎)의 질서 거부
 - 비밀조직, 사회변혁 의지, 신분제 위협
 - 서교인은 '나라에 원한을 품은 자들'
'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자들'
 - 사학은 '무부무군' 70p 인용 reading

The Church History of Korea

- 동양적 유교는 휴머니즘
서양적 서교는 훼손과 반역으로 인식
- 로마 제국, '인류의 적' (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)
- 오가작통법(상호간 사찰제도) - 사학 진멸
- 청국인 신부 주문모 밀입국 --- 처형
주문모에게 세례 받은 은언군 부인 송씨와
머느리 사약.
- 죄명: '천주 주재 만물'
